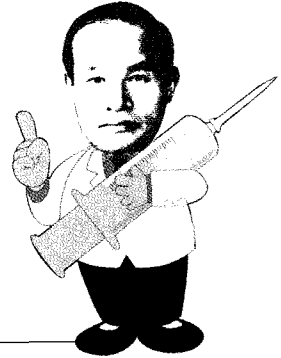


## 가금위생



### 오 경 록

남덕에스피에프 대표/의학박사

#### 양계장에서의 SI방지에 제일 중요한 야생조류 대책

일본에서 79년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해서는 그 감염경로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정확하게 밝혀진것은 없다. 그러나 추정요인중에 일본에 날아오는 야생조류가 바이러스를 국내에 유입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돗토리대학의 이또우씨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야생조류에 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금후의 대책으로 다음의 내용을 들고 있다.

우선 양계장에서의 야생조류의 대책으로서 는 무창계사를 바꾸는것보다 야생조류의 계사내 침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야생조류방어 망 설치 같은일이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사내 뿐만아니라 농장내에 야생 조류가 많이 드나들게되면 바이러스가 닭에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능한 줄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료의 관리가 중요하다. 농장내 통로나 사료빈 주위에 사료가 흘러 있으면 당연히 참새나 비둘기 등의 야생조류가 모여들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가 필요하다. 계분이나 계분처리장도 곤충을 잡아먹는 조류가 모이기 쉽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급수용의 물도 야생조류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며 양계장 내부에 소독의 철저등의 일반적 위생대책도 항상 정기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계사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는 조류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의 유무를 정기 조사하여 감시하는것도 중요하다. 또한 해외와 정보교환 및 발생국가로부터 야생(애완)조류의 수입을 금지하여 바이러스의 국내침입을 방지하는일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NK, 2005.2)

#### 야생조류의 각종 병원체 보유의 가능성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PAI) 발생에 따라 발생지 주변에서 폐사한 까마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었고, 까마귀에 의한 HPAI 전파의 위험성도 제시하였다.

한편 야생조류와 닭사이에는 살모넬라균등 공통의 병원체가 존재하고 야생조류로부터 닭으로 병원체가 전파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니이가다현 가축 보건위생 시험소에서는 니이가다현에서 포획하거나 사육하고 있는 야생조류에 대해서 닭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병원체의 보유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으로서는 조류 5목 7과 15종에 대해서 30수의 혈액, 11개 사육실과 12수의 비둘기 분변을 이용하였다.

검사로서는

- ① 혈액, 도말표본의 관찰에 의한 주혈원충 기생
- ② 한천 젤내 침강반응에 의한 류코싸이도준병의 항원과 항체 검사
- ③ 부유 방법에 의한 내부기생충란과 원충란의 검사
- ④ 집비둘기, 산비둘기, 까마귀에서 검출된 콕시디움 원충의 닭투여시험
- ⑤ 계분의 살모넬라균 검사
- ⑥ 혈구응집억제시험에 의한 ND의 항체 검사를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까마귀류와 올빼미에서 헤모푸로테우스속 원충기생이 인정되었으나, 류코싸이토준속 원충의 기생은 보이지 않았다.
- ② 류코싸이토준병의 항원 및 항체검사는 음성이었다.
- ③ 집비둘기, 산비둘기에서 콕시디움원충, 회충란을 집비둘기에서 모세 선충란을, 까마귀류에서는 콕시디움원충과 모세선충란을 검출하였다.
- ④ 검출된 콕시디움원충란의 닭으로의 감염은 보이지 않았다.
- ⑤ 백로, 올빼미에서 살모넬라 인판티스가 분리되었고, 야외에서 보균 가능성이 높은것을 보여주었다.
- ⑥ ND의 항체가는 5배 이하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야생조류에는 닭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병원체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NK,2005.2)